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초극

류희식*

|| 차례 ||

- I. 서론
- II. 금기(터부)의 계보와 기능
- III. 무의식화된 금기의 초극
- IV. 현실 국가장치의 금기에 대한 저항
- V. 결론을 대신하며

【 】

‘한국문학과 금기의 사회학’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장용학의 소설이 어떻게 한국사회의 금기와 대결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용학은 일찍이 자신의 소설이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임을 밝힌 적이 있다. 따라서 그가 왜 금기에 도전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금기의 계보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금기는 ‘위반’보다는 다양한 사회체를 구성하는 ‘토템’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와 니체 등에 따르면, 여러 사회는 ‘토템과 터부’라는 두 기재를 통해 작동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시사회체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토템과 터부가 존재했다. 그런데 태초의 국가인 전제군주제가 출현하자 모든 토템과 터부는 ‘전제군주와 그의 법(표정)’에 의하여 재정립된다. 신체들은 자신의 능동성을 상실하고 전제군주의 토템과 터부에 맞게 코드화 된다. 그 후 근대국민국가가 출현하면서 토템과 터부는 ‘국민(민족)과 법’의 형태로 변화한다. 이제 신체 자신이 국가의 토템이 되고, 스스로 법에 구속된다. 다시 말해 근대국가는 신체들을 끊임없이 ‘국민’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상에 따르면 금기는 사회체의 작동과 존속을 위하여 신체의 능력을 구속하고 제약한 장치들이다.

장용학은 전기의 몇몇 소설들에서 이미 무의식화 된 ‘동종포식금지’, ‘근친상간금지’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등의 금기를 의지적으로 어기는 인물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물들은 능동적으로 ‘비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와 달리 후기 소설들에서는 신체를 예속하는 국가폭력에 강하게 저항한다. 국가는 자신의 토템과 터부를 구성해야만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들을 국민주체로 호명하고 법으로 구속하기 때문이다.

장용학이 자신의 소설을 통해 금기에 저항하고 이를 초극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금기가 금지하는 결핍을 욕망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금기가 지향하는 목적 자체(사회체가 요구하는 인간형상)가 무의미한 것이므로 이를 초극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모든 신체들이 예속에서 벗어나 능동성을 회복하기를 원했다.

주제어: 장용학, 토템, 터부, 금기의 초극, 예속에 대한 저항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장용학의 소설이 한국사회의 금기와 대결한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장용학은 1983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설이 금기에 대한 도전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자는 그의 소설이 ‘南派된 간첩’, ‘아버지를 살해하는 아들’, ‘친아들의 肝을 끄집어내 삼키는 아버’ 그리고 ‘近親相姦을 행하는 인물’ 등 “표준 도덕률에 의하면 굉장한 악당들”을 다루어 왔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장용학에게 한국문학에서 다루지 않는 금기들을 다루는 이유를 묻는다.

이에 대해 장용학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사회의 금기에 도전했다고 말한다. 그 까닭은 사회의 ‘벽’인 금기에 도전할 때라야 작품이 ‘리얼’해지고 가장 ‘인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 이에 따르면 장용

1) “알아요. 근친상간을 다루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저는 이 벽에 도전해왔던 겁니다. 이 벽에 도전할 때 작품은 가장 리얼해져요. 가장 인간다운 목소리로 얘기할 수가

학은 소위 사회의 ‘금기’에 갇힌 신체가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고 넘어서려는 신체, 소위 ‘이단’을 인간이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단이야말로 인간이라는 그의 논리는 언 듯 보기에 역설이다. 그렇다면 그의 작품들을 통해 그가 말한 역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장용학 소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圓形의 傳說』을 넘어서지 않았다.²⁾ 이는 초창기 논자들이 그의 작품들을 ‘전후문학’과 ‘실존주의 문학’이라는 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후문학’은 4·19세대들에 의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그들은 전후문학이 전쟁의 충격을 표현하고 있으나, 고통 속에 빠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근대를 고민해온 그들에게 근대의 초극, 특히 근대국민국의 초극을 고민했던 장용학의 진면목이 이해되기는 어려웠다.

이와 달리, 실존주의적 접근은 장용학이 『요한 詩集』을 창작할 때 샤르트르의 『구토』의 영향을 받았다는 진술과 당대 세계적 중심사조가 실존주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진술은 분명히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그의 소설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실존주의 관점의 연구는 『요한 詩集』에 한정할 수 있는 서술을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존주의적 관점은 그의 소설이 끊임없이 현실적 ‘인간’을 규정하는 지배적 코드들을 부정함과 동시에 주체 역시 거부하고 있다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게다가 더욱 문제적인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의 소설을 재현론적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금기죠. 금기인줄 알면서 저는 대시했고... 그만큼 미움도 받았어요. 나의 소설은 소설이 아니라고, 나를 異端이라고 규탄했던 소리를 지금껏 기억합니다.” (김승용, 『나는 뭘 쓸 수 있던 말인가-『傳說』 속에 묻혀 사는 작가 張龍鶴』, 『한국일보』, 1983.9.28., 7면.)

2) 대체로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다소 다양한 관점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상 작품은 여전히 전기(前期) 작품에 한정되고 있다.

관점 일변도로 파악한 것이다. 특히 그를 ‘관념소설가’로 규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리얼리즘의 ‘전망주의’ 때문이다.

그런데 장용학의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리얼리즘이나 자연주의가 표방한 반영론을 지속적으로 부정했다는 사실이다.³⁾ 그는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연구자들은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이 ‘관념소설’이며 그래서 그를 ‘관념소설가’라고 부른다.⁴⁾ 리얼리즘이 맹위를 떨치던 지난 시대의 평가가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문학 연구자들이 여전히 반영론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장용학은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이 현실의 삶에 자극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자신의 소설이 현실을 그대로 추수하고 재현하기보다, 현실의 메커니즘이 만들어 낸 ‘일상성’을 벗어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⁵⁾ 이는 문학이 단순히 현실의 재현으로 그치는

3) 장용학은 여러 곳에서 이를 밝히고 있는데, 「감상적 발언」(『문학예술』, 1956.9.), 「현대문학의 양상 상(上) - 주어와 연금술」(『동아일보』, 1959.5.8.), 「작가의 시각-나는 작품을 어떻게 쓰나?」(『사상계』 62년 12월호) 등의 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한다. 아울러 작품 속의 예술가-주인공이 추구하는 예술적 경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非人誕生」(『사상계』, 사상사, 1956.10.~1957.1.)의 주인공 지호가 그린 인물화가 실제 인물에 대한 모사가 아니라 인류사 전체를 진단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 「청동기」(『세대』, 세대사, 1967.8.~1968.12.)의 등장인물인 기오와 철재의 예술에 대한 대화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 장용학은 자신에게 내려진 ‘관념소설가’라는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평가나 연구자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흔히 내 작품을 관념소설이다. 나를 관념소설의 대부라고 일컫는데 이는 내 소설에 내재된 정서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나온 소리 같습니다. (중략) 일부 평론가들이 내 작품을 평할 때 소설 행간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와 작가의 깊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면만 살핀 후 평하곤 하더군요. 이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요한시집>에서 <하여가행>까지』 - 원로작가 장용학과의 만남, 『21세기 문학』, 1997년 가을호, 18면.)

5) 장용학, 「感傷的 發言」, 『문학예술』, 문학예술사, 1956.9.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삶의 태도 소위 ‘정동(affect)’을 생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문학이 실재를 이루고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은 ‘잠재적인 것’을 실험하는 것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자신의 문학 행위가 금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한 장용학의 작품 세계로 진입하기에 앞서, 논의의 핵심어인 ‘금기’에 대한 간략한 이론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우회는 장용학이 본 ‘금기’에 대한 저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금기(터부)의 계보와 기능

세계 여러 민족과 문화에서는 다양한 금기가 존재한다. 우리 문화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그 금기를 일일이 조사하여 일상 속에서나 문학 속에서 어떠한 의미/기능을 하는가를 살피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인간 신체의 특정한 활동을 속박하는 금기의 생성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금기의 양상이나 사례를 찾기보다 간략하게나마 금기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기로 하자.

금기는 신체에 강력한 힘이 작용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금기(禁忌)’라는 단어를 ‘위반과 짝짓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데 우리의 익숙한 인식과 달리, 터부는 토렘과 결코 떼어서 논의할 수 없다. ‘금기’는 폴리네시아어인 ‘터부taboo’의 번역어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터부의 특징은 ‘신성한’, ‘성스러운’이라는 의미와 ‘기분 나쁜’, ‘위험한’이라는 의미의 상반된 두

방향을 지향하는 양가성을 지닌다.⁶⁾ 그는 자신의 글에서 특히 ‘근친상간’ 터부를 구성하는 이 양가성의 원인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따른 토템 설립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토템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원시사회에서 아버지 무리들은 아들 무리들을 쫓아내고 여자들을 독차지한다. 그러자 아들 무리는 여성(어머니)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아버지 무리들을 죽인다. 그 후 그들은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폭력적인 원초적 아버지의 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아버지의 능력을 자신의 신체와 합성함으로써 아버지와 일체화된다. 프로이트는 이것이 최초의 ‘토템의 향연’이었다고 한다. 그 후 아들들은 어머니 무리를 포함한 여성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게 되고, 그 결과는 사회체의 파국이라는 무서운 결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아들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친부살해의 죄과를 뉘우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죽은 아버지를 토템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터부가 만들어지는데 ‘동족살해’와 ‘근친상간’을 금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되돌아온 아버지는 동물이나 식물 등 여러 가지 대상으로 전이되고, 그래서 원시사회에는 다양한 토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프로이트는 아들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친살해라는 인류 최초의 이 범죄로 인해 사회조직, 도덕적 제약, 종교 같은 것들이 비롯되었다고 한다.⁷⁾ ‘근친상간’ 터부가 양가성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에 대한 욕망과 아버지에 의한 두려움의 공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사회가 존속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역사 속의 아들이 토템과 터부에 끊임없이 저항하더라도, 결국은 또 다른 토템과 터부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 G. 프로이트,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4, p.54.

7) G. 프로이트, 위의 책, pp.215-218.

이러한 프로이트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인간 문명은 근원적으로 죄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욕망은 죄악의 근원이므로 억압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그가 전제군주의 이야기인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 오이디푸스 삼각형을 찾아낸 다음 이것을 전체 역사로 투사한 것에 불과한 허구이다.⁸⁾ 프로이트와 달리 니체는 원시사회의 형성, 프로이트가 말한 토tem과 터부의 형성에 대하여 전혀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그것은 ‘부채의 논리’이다.

그에 따르면 태초에 무책임한 망각의 동물이었던 인간이 점차 ‘약속하는 인간’, 능동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이 되고⁹⁾ 이들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된다. 그리고 사회는 공동체의 안녕에 해가 되는 행위자에게는 공동체가 입을 손해에 해당하는 잔인한 고통의 형벌을 가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공동체에게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죄의식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한 프로이트와 달리, 이 형벌에는 어떠한 죄의식도 없다는 점이다.¹⁰⁾

공동체가 점차 성장하면서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선조들에게

8)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안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2014, p.450.

9) 눈여겨 볼 것은 니체가 말하는 책임에는 수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책임이라는 이상한 특권에 대한 자랑스러운 인식, 이 희한한 자유에 대한 의식, 자기 자신과 운명을 지배하는 이 힘에 대한 의식은 그의 가장 밑바닥 심연까지 내려앉아 본능이, 지배적인 본능이 되어버렸다; — 만일 그 스스로 이에 대한 한 단어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이 지배적인 본능을 무엇이라 부르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주권적 인간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른다……” 프리드리히 니체,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13, pp.398-399.

10)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을 통해 악행의 주모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오직 죄를 지은 자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형벌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 오히려 형벌은, 오늘날 역시 부모가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표출하는 분노에서 가해졌던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p.403.

부채의식을 지니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에 근거하여 조상에 대한 복종의 원리가 세워진다. 그리고 이 채무관계는 종족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진다.¹¹⁾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종족일수록 조상에 대한 무한부채의식은 공포로 다가오고, 종족이 더 강력해지면 질수록 조상은 상상할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¹²⁾

게다가 들뢰즈와 가타리는 프로이트가 『토텐과 터부』에서 다루고 있는 원시사회에는 복수적이면서도 이질적인 다양한 토렘들이 상호 공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원시사회의 신체들은 ‘엄마’, ‘아빠’, ‘아들’이라는 인물과 역할들로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도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하다가 타 부족과의 관계 맺기에 의해 역할을 부여받는다. 혈족들은 다른 종족과 결연들을 맺고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근친에 대한 욕망을 능동적으로 억압한다. 이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따른 죄의식과 전혀 관계가 없다. 두 종족이 결연 맺는 것과 함께 가변적으로 존재하던 인물들에게 ‘어머니’ 또는 ‘누이’라는 이름들을 부여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나 누이는 이들을 배우자로 금지하기 전에는 실존하지 않는다.’¹³⁾ 따라서 원시사회체에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근친상간은 실존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시사회체에 국가가 도래한다. 물론 국가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권적 ‘1자’인 국가의 출현을 저지하던 원시사회체의

11)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p.437.

12) “가장 강력한 종족의 선조는 자라나는 공포 자체의 상상으로 마침내 어마어마한 존재로 커가고, 신적인 무서움과 상상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 선조는 마침내 필연적으로 하나의 신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 신들의 기원 자체, 공포로부터의 기원이 있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p.438.

13)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p.279. 즉 엄마와 누이는 금지가 있기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과 함께 성적 파트너가 불가능해진 다음에야 엄마와 누이가 생겨난다.

기능 장애에서 기인했든, 국지적으로 존재하다가 갑자기 원시사회체에 출현했던 간에, 국가는 원시사회체와 마찬가지로 원래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¹⁴⁾ 그리고 전제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는 평등한 상태로 있던 원시사회체를 하나의 거대한 수직적 구조물, 즉 피라미드 형태로 재조직한다. 수많은 원시부족들은 거대기계인 국가를 구성하는 ‘벽돌’이 된다.

오랫동안 지속해온 원시사회체는 여러 종족 간의 압제 및 통합, 멸절이라는 역동적인 쟁투를 겪었을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선사시대’로 말해지는 긴 시간 동안 토템을 잃은 수많은 터부들이 남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다양한 터부들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국가는 전제군주 종족의 선조였던 유일신이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기존의 모든 토템을 폐위한다. 모든 터부는 전제군주에 의해서 수많은 왜곡, 재해석 혹은 무의미화 과정을 겪게 된다. 우리가 명확한 기원을 알지 못함에도 거의 무의식화 되어버린 다양한 터부들이 잔존한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토템을 잃어버린 채 터부만 남게 된 것이다.

국가의 출현과 함께 이제 오직 하나의 유일 토템과 이와 관련된 터부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 유일한 토템과 터부는 ‘전제군주’와 ‘법’이다.¹⁵⁾ 전제군주

14) 들뢰즈와 가타리는 인류사의 시작은 평면적인 원시공동체(원시사회체)와 수직적 국가인 ‘전제군주국가’가 잠재적인 형태로든 실질적인 형태로든 공존하고 있었다고 본다. 원시사회체는 우월한 부족의 지배상태가 아니라, 동등한(내재적) 부족들간의 역동적이고 비평형적인 상호교류 속에서 존재했다. 아울러 이 사회는 전쟁을 통하여 끊임 없이 국가의 형성을 저지하였다.(질 들뢰즈, 팰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민음사, 2001, p.684.)

15) 조르주 뒤메질은 정치적 주권 혹은 지배권은 항상 두 개의 머리, 즉 ‘마법사-왕’과 ‘관관-사제’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것이 바로 국가의 두 극인 “묶는 것”과 “계약”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이는 ‘묶는 자’와 ‘조직하는 자’, ‘왕’과 ‘법’에 해당한다.(질 들뢰즈, 팰릭스 가타리, 위의 책, pp.671-672.) 박

국가의 토토텐인 황제는 모든 의미의 중심이 되고,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제군주의 표정에 의해 의미화된다. 시간이 흐르고 국가의 벽돌이 된 종족인 노예와 농노들은 그들의 지배자가 신에게 올리는 의식에 적응하게 된다. 신체들은 본래의 능동성을 잃고 전제군주의 표정(의미 또는 기표)에 종속된다. 원시사회체가 차이와 다양성을 보존하고 용인한 반면, 국가는 무시무시한 폭력으로 모든 신체들의 자유와 능력을 억압하여 잠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눌린 자유의 본능은 내면으로 윤패 되어(내면화) 자기학대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다. 국가의 출현과 함께 양심의 가책 즉 ‘죄의식’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¹⁶⁾

자본주의는 편집증적인 전제군주제의 외부에서 우발적으로 출현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의 이해관계, 즉 자본의 극한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탄생한다. 근대국가가 전제군주국가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다. 근대국가는 자본주의라는 직접적인 경제 관계 내

지움은 이 국가의 두 극은 고스란히 토토텐과 터부에 대응된다고 말한다(박지움, 『프로이트의 모세살해설을 통해 본 식민지, 신식민지, 탈식민지의 기원』, 『현대사상 제9호』, 현대사상연구소 편, 2012, p.33.).

16)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 pp.434-436. 국가의 인간들은 그들의 세력이 커지는 만큼 조상신들에 대하여 무한한 부채의 감정을 지녔다. 일신교인 기독교의 출현은 조상신에 대한 채무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채는 어떠한 식으로든 상환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인간은(기독교를 믿는 인간이 되겠지만) 상환이 불가능한 부채=죄를 지게 되었다. 신 스스로가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신에 대한 죄책감, 즉 원죄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대지는 이미 정신병원이 되었다고 말한다.(같은 책, pp.440-443.) 니체와 달리 프로이트는 양심을 부정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양심이란,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원망을 거부하는 내면적 지각이다.” 그리고 “야심의 가책은 무의식에 잠복해 있는 유혹에 대한 반작용을 그 증상으로 한다는 것”(프로이트, 앞의 책, pp.122-123.) 프로이트는 도덕적인 측면을 발생론적 관점에서, 다시 말해 그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하는 준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에서 태동하기 때문이다. 신체에 부여되었던 코드들은 사라진다. 그리고 맑스의 말대로 대부분의 피지배계층은 노동자가 되어 신분제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과 동시에 생산수단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그리하여 자본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노동의 흐름이 만나 새로운 자본(잉여가치)을 낳게 되는 순간 자본주의 사회체가 형성된다.¹⁷⁾

초코드화의 정점에 있던 전제군주는 사라지지만 그가 만든 거대한 기표적 기호체계, 즉 의미화 체계는 그대로 남는다.¹⁸⁾ 이제 자본주의는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국가를 재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역시 하나의 정치체인 만큼 새로운 토템을 만든다. 그것이 ‘민족’, 혹은 ‘국가-국민’ 등이다. 그리고 이 토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법체계가 근대의 터부인 것이다. 기표적 기호체계와 더불어 모든 법체계가 자본주의라는 질서를 최선으로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토템에 가장 적절한 신체가 되도록 만든다. 즉 사회적 예측을 통하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은 기계적 시스템의 부분 부품이 되도록 만든다.¹⁹⁾ 우리가 저항 없이 학교, 군대, 기업 등등의 사회적 장치에 접속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용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이미 그 기원을 파악하기 힘들어 무의식화 내지 일상화 되어버린 터부들에 대한 장용학의 대응을 살펴보다

17)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pp.384-386.

18) 소쉬르는 언어가 차이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으나, 실제 언어는 기표적인 기호계의 양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전제군주의 표정에 의해서 ‘의미화’되었던 기호체계가 존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의미화 될 때는 ‘좋은’, ‘자상한’, ‘무책임한’ 등등의 평가가 항상 따라붙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평가에 의해 신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 니체가 유럽인들이 여전히 ‘신이 죽었다’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도 사태는 이와 유사하다. 신의 부고(訃告)는 신이 만든 가치목록의 유효성이 상실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19)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신병현, 심성보 역, 『기호와 기계』, 갈무리, 2017, pp.34-35 참조.

록 하겠다. 그리고 4장에서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토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신체에 작동하는 근대국민국가의 터부에 대한 그의 소설적 대응을 다루도록 하겠다.

Ⅲ. 무의식화된 금기의 초극

장용학은 자신의 소설을 『圓形的 傳說』까지를 전기로, 그 이후의 작품들을 후기로 구분한다. 그러면서 전기 소설은 “부조리 메카니즘, 이런 것의 굴레에서 인간을 구제하려는 절규”로, 후기 작품은 “독재의 억압에서 인간을 수호하려는 저항, 그 비명”²⁰⁾이었다고 한다. 전기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근대적인 인간이기를 부정하고 ‘비인간’이 되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人間의 終焉』(1953.11.), 『非人 誕生』(1956.10.~1957.1.), 『圓形的 傳說』(1962.3.~11.), 『喪笠 神話』(1964.4.) 등이다.

『인간의 종언』에서 네 살배기 아들과 아내를 둔 주인공 상화는 자신의 지도교수로부터 ‘수재’라고 평가받는 수학자이다. 미국 유학시험에 합격한 그는 신체검사에서 나병 환자 판명을 받는다. 그 판결로 인해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던 모든 미래는 물거품이 된다.

길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자꾸 쏘리는 나의 결눈질! 사람의 간이라도 먹고 싶은 이 유혹. 스스로를 죽이든지 남을 죽여 그 간을 먹든지……. 惡이 어떤 것이고 善이 무엇인가. 길이 돌밖에 없는 자에게 그 어느 것이든 자유로 택해도 좋은 권리는 있어야 했을 것이다. (……) 선악의 대립은 假想이다. 人類는 무슨 『도구마』 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生과 善, 『個』와 『多』는 같은 平面

20) 장용학, 『작가의 말』, 『장용학 대표작품 선집』, 책세상, 1995.

에 있는 것이 아니다.²¹⁾

문둥이가 된 상화는 ‘사람의 간이라도 먹고 싶은 유혹’에 길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자꾸 쏠리는 자신의 눈길을 자각한다. 타인의 신체를 먹어서라도 삶을 살아가고 싶은 강력한 충동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로막는 것은 ‘선악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선악의 판단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고 절규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등에 자신과 같은 부스럼이 난 것을 확인한 상화는 아내 몰래 아이의 피를 뽑아 병원에 가지고 간 다음 자세히 조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 아들 역시 나병 환자로 판명이 난다. 며칠 후 그는 아내에게 아들과 자신이 문둥이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내의 어젯죽지를 살펴 보고는 그녀의 몸에서도 나병이 발병한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상화는 가족이 동반 자살할 것을 아내와 상의한 다음 실행에 옮긴다. 잠을 깬 아들에게는 ‘수면제를 탄 사탕물’을 먹여 재운 다음, 부부는 나란히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고 휘발유를 뿌린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불을 지른다. 그러나 휘발유가 다 탄 다음 얼마 되지 않아 불이 꺼지자 ‘반쯤 구워진 고기’가 된 상화는 칼을 찾아들고 아들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 먹고 만다. 그 다음 그는 가린 담요를 걷고 방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오려다가 쓰러진다.

그것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무슨 銅像이었다. 인간을 먹은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인간을 끝낸 것이다. 人間은 끝났다.

枯木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불쑥 튀어나오려다가 거기에 멎은 것 같은 두 눈. 자식의 간을 받아들인 오장 육부가 그 몸 안에서 불타고 있는 것이다.

21) 장용학, 『人間的 終焉』, 『문화세계』, 1953.11, p.215.

이제라도 핑 하고 폭발할 것만 같은 그것은 하나의 鎔鑛爐 못지않았다.

손을 든다. 손을 들며 그는 뭐라고 입을 열려고 하였으나 그때는 늦었고
통 문지방으로 쓰러졌다. 이미 그것은 아까 타 죽었던 송장이었다. 아침바람
이 그 시체 위를 넘어 들었다.

눈을 홑뜬 그의 팔목에서는 입자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
은 世界의 時間이었다.²²⁾

결국 상화의 욕망은 아들의 육체를 먹고 만다. 물론 아버로서의 상화는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체는 끝내 살고 싶다는 욕망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동종포식’을 넘어 자식의 신체를 먹는다는 사실은 잔혹한 비극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장용학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바로 욕망의 강렬함이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도 삶의 의지인 욕망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을 먹은 인간’은 현재의 ‘인간’이라는 기표 아래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지만 장용학은 이것이 실재할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圓形의 傳說』 역시 이와 동일선에서 이해된다. 간략히 말하자면, 이 작품은 남매간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주인공 이장(李章)이 태생의 비밀을 확인한 다음, 근친상간의 사실을 숨기고 부정해 온 아버지를 찾아가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이야기이다. 오택부는 여동생 오기미를 강간한 다음 주인공을 낳는다. 오기미는 주인공을 낳다가 죽고, 생부인 오택부는 어린 주인공을 질식사 시키려다 실패한 다음, 이도무에게 아이를 떠 넘기는 대가로 생활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오택부에게서 지원이 끊어지고, 이도무는 이장이 사생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된다. 그 후 이장은 인민군에게 잡혀 의용군이 되어 전장으로 끌려간다. 전장에서 그가 남한에서 북한,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을 오가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은

22) 장용학, 앞의 글, p.218.

한국전쟁을 둘러싼 근대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장치로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세 번의 근친상간이다. 하나는 이장이 태어나게 된 오택부-오기미 남매의 근친상간이며, 다른 하나는 이장이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유엔군에 쫓기는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털보 모녀의 근친상간이다.

털보는 인민군과 동행하다가 폭격으로 낙오한 이장을 구해준다. 그런데 그는 이장에게 자신의 딸 윤희(倫姬)와 동침할 것을 강요한다. 우연히 구해준 남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딸과 동침을 시키려는 것이 이상했으나 이장 역시 윤희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의 부탁을 들어준다. 윤희는 그에게 “이렇게 꼭 한번만 안기고 싶었다”²³⁾고 고백한다. 그러나 다음 날 윤희는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매고 자살하고 만다. 이장은 죽은 윤희가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털보가 왜 그에게 윤희와 동침시키려 했는지 알게 된다. 털보는 이장을 윤희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로 둔갑시키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두 번의 근친상간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긍정함으로써 금기를 위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한다. 오택부는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 어린 이장을 죽이려 했으며, 나중에는 이도무의 자식으로 살게 했다. 털보 역시 자신의 근친상간을 숨기기 위해 이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딸이 자살함으로써 두 목숨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로 끝난다.

이들의 행위에는 대상에 대한 욕망과, 금기가 만들어낸 죄의식이 반복해서 드러난다. 이는 앞서 프로이트의 ‘양심의 가책’에 빠진 인간이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양가감정, 특히 그의 양심의 가책은 ‘엄마-아빠-나’라는 기표

23) 장용학, 『圓形의 傳說』, 『사상계』, 사상사, 1962.4, p.406.

적 기호체계가 만들어낸 주체의 형상이다. 기표적 기호체제는 각각의 신체들에게 ‘엄마이기’ 또는 ‘아빠이기’ 등 특정한 삶의 태도를 강제시킨다. 특히 남한에서 국회의원인 오택부는 자신이 근친상간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하게 될 “社會的 埋葬”²⁴⁾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는 그가 이 사회의 시스템에 충분히 예측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이와 달리, 장용학은 이장의 근친상간을 통하여 터부가 만들어낸 죄의식을 초극하고자 한다. 처음에 이장은 안지야가 오택부의 애첩인 것으로 오인하고, 안지야를 통해 그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중에 두 사람은 서로가 배다른 남매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오택부가 이장을 감금하여 죽이려고 한 별장의 동굴로 함께 들어간다. 이장은 동굴 입구에 만들어진 쇠창살 문을 잠그면서 ‘세계를 잠근 것’이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갇힌 동굴은 ‘말(言)’이 아니라 ‘동작’만 있는 곳이라고 스스로 규정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험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미워도 해봤지만 演劇을 할 만두 했겠다고 理解가 가요. 저는 사랑을 위해서였지만.」

「사랑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연극은 있을 수 없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왜 그렇게까지 좋아했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늦었는 걸요.」

이슬이 맺는 얼굴을 저쪽으로 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地獄에 떨어질 女子죠?……」

「地獄이 아니다! <에덴> 저쪽이다! 아담 이브를 넘어 에덴 저쪽에 가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거기에는……」²⁵⁾

24) 장용학, 위의 글, 1962.10, p.357.

25) 장용학, 위의 글, 1962.11, pp.361-362.

비록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지만 남매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나눈다. 그런데 이미 동굴의 공간은 이장이 말한 ‘말’이 없는 세계이다. 여기서 말은 부제가 암시하듯이 ‘금지’, 다시 말해 사회가 만들어둔 ‘법’ 혹은 ‘명령어’이다.²⁶⁾ 따라서 동굴 속에서는 두 사람의 신체를 규정하던 가부장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덧붙이자면 이 작품의 곳곳에서 ‘말’ 또는 언어를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언어가 인간 인식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통한 인식은 결코 실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⁷⁾ 그러므로 진리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는 인간의 역사는, 오류를 긍정한 것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산물이 된다. 이는 또 다른 역사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안지야의 말에 지옥이 아니라 “에덴 저쪽”이라는 이장의 대답은 지금까지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새로 펼쳐질 역사는 근친상간의 터부를 비롯하여 선악, 미추, 자타의 구분 등 오류로서의 인식이 만들어낸 이항대립을 넘어서는 것이다. 대립이 없는 새로운 역사에서 만물은 원(圓)과 같이 이어져 모두가 동등한 전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26) “일례로 『圓形의 傳說』이라는 작품의 처음 가제는 『禁止된 動作』이라는 것이었다. 가령 작품을 끝까지 가제로 밀고 나간다면 그 작품의 모습이나 성숙도(成熟度)는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생각된다. (중략) 그렇게 해서 초고(草稿)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인공이 그때그때 한 말들의 촛점, 귀일점을 찾아내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본제명(本題名)을 찾아내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주제를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장용학, 『나는 작품을 어떻게 쓰나?』, 『사상계』, 사상사, 1962년 12월호, pp.278-279.)

27) 니체는 인간은 결코 실재를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은 차이나는 것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동일화 작업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2011, p.45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이러한 ‘오류로서의 인식’이 인간 신체가 지닌 고유한 능력이라고 긍정한다.

이처럼 전기 소설에 속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통하여 장용학은 이미 너무 오래되어 무의식화 되었거나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되었으나 지금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금기들에 도전하고 있다.²⁸⁾ 그들이 금기에 도전하는 것은 금기에 의해 금지된 것(결핍)을 욕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금기가 신체를 제약함으로써 달성하게 될 결과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작품들의 제목이나 주인공의 이름은 ‘비인(非人)’, ‘이장(二障)’, ‘인후(人後)’ 등으로 현실의 인간을 부정하고 비인간을 지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지향하는 ‘비인’은 근대적 인간, 다시 말해 현실의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신체라고 할 수 있다.²⁹⁾

IV. 현실 국가장치의 금기에 대한 저항

전제군주 법(전제군주의 표정)으로 구성되었던 전제군주제의 토템과 터부와 달리, 근대국민국가의 그것은 ‘민족(국민)’과 ‘법’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신체들을 모뉘화하여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이라는 주체로 만들고 법으로 이들을 포획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체들은 자신이 지닌 능력을 잃고 불구가 된다. 모든 신체들을 불구 또는 좀비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28) 이 외에도 지면상 다루지 못한 작품 가운데는 제도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거부하는 「非人誕生」(『사상계』, 사상사, 1956.10~1957.1.), 우리 전통 사상인 효에 대한 비판과 초극을 형상화한 「喪笠新話」(『문학춘추』, 문학춘추사, 1964.4.) 등이 있다.(이 작품의 분석에 대해서는 류희식, 「탈기표적 삶의 추구와 광인되기」(『현대소설연구 55』, 2014.3.)를 참고할 것)

29) 이들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 되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류희식, 「장용학의 전기(前期) 소설에 나타난 ‘비인되기’와 ‘소수자되기」, 『한국현대문학이론과비평 제7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9.를 참고할 것.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³⁰⁾

그런데 신체를 국민주체로의 예속하고 법체계로 포획하는 국민-국가의 토템과 터부에 대한 진단과 저항은 장용학이 평생을 지속해온 주제이다. 그것은 비교적 초창기 작품인 『찢어진 倫理學의 根本問題』에서부터 시작하여 1980년 전후에 창작된 후³¹⁾ 유고로 남은 『氷河紀行』(『한국문학』, 한국문학사, 2001. 가을)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 장에서는 이 계열 작품들 가운데 장용학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요한 詩集』, 『現代의 野』 그리고 유고인 『氷河紀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조선은 자발적으로 자본주의 근대국민국가를 만들었던 서구와 달리 전제군주제를 지속해왔다. 그러다가 자본주의의 지구적인 확장 속에서 제국주의에 의해 붕괴된 모든 전제군주국가와 마찬가지로, 일제에 의해 패망한 다음 식민지를 거쳐 독립했다. 그 후 조선은 남북한 각각에 국가를 설립함으로써 두 개의 국민국가로 분단되었다. 새롭게 성립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토템과 터부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장치의 요구를 가장 확실하게 충족시킨 사건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한국전쟁은 대체로 서로 다른 근대를 지향하는 이념에 의한 전쟁으로 이해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군은 언제나 윤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 한국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6·25'로 불린 것 역시 '전쟁의 발발' 특히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침입'을 부각하기 위한 명명였다. 그런데 장용학은 한국전쟁에 대하여 독특한 시각을 보인다. 한국전쟁을 다룬 『요한 詩集』에서 국가장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30)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앞의 책, p.818.

31) 유고 <氷河紀行>의 창작 시기는 작품을 창작하던 메모가 적힌 1979년도 달력에서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류희식, 『장용학 소설의 삶문학적 특성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5, pp.137-139, 각주 95 참고.

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전쟁을 통해 신체들을 공포로 빠뜨리고, 동시에 이들을 ‘국민’으로 만든다. 이는 누혜가 남긴 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第二次大戰이 끝났다.

나는 人民의 벗이 됨으로써 再生하려고 했다. 黨에 들어갔다. 당에 들어가 보니 인민은 거기에 없고 人民의 適을 죽임으로써 人民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만들어 내는」 것과 「죽이는」 것. 이어지지 않는 이 間隙. 그것은 生의 乖離이기도 하였다.³²⁾

위 인용문은 전쟁 동안 북한인민군 영웅으로 불렸던 누혜가 남긴 유서의 일부분이다. 해방 이후 그는 인민의 벗이라는 공산당에 가입한다. 그리고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전쟁에 스스로를 던졌다. 전쟁 동안 그는 인민군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으나 결국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히고 만다.

그런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은 끊임없이 이념적 선택을 강요당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서로 죽이기를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전쟁의 부품으로 참여했다가 적대적인 상황 하에서 자발적으로 토tem이 된 신체들의 결말이다. 누혜의 진단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신민(臣民)’에 불과했다. 그러던 그들은 한국전쟁에 휩쓸리다가 포로가 되었다. 그 후 그들은 20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포로 송환 협정 과정에서 전향에 대한 강요와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³³⁾ 드디어 토tem인 국민주체가 된다. 그 결과 포로수용소는 또 다른 전장이 되고 만다.³⁴⁾ 누혜의 자살은 배타택일적 선택(예속)을 강요하던 국가장치의

32) 장용학, 「요한 詩集」,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57.7, p.78.

33)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pp.182-190.

34) “한편에서 世界의 孤兒가 된 포로병들의 가슴 속을 이렇게 거래하던 회의는 이리

포획을 거부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이와 같이 ‘적을 죽임으로써 인민을 만들어내던’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다. 그 까닭은 한국전쟁이 유래 없이 많은 사상자를 양산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엄청난 죽음에 덧붙여, 적을 죽이고 만들어진 인민, 즉 전쟁의 공포 속에서 자발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된 신체들의 처지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포로수용소에서 누헤의 유일한 친구였던 동호가 석방되어 육지로 나가는 과정에서 제시된다.

남한의 민간인이었던 동호는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의용군으로 동원되었다가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자살한 누헤와 달리, 그는 지난한 포로송환 협정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서 남한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포로수용소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가다가 본토를 본 동호는 놀라운 인식적 반응을 보인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석방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다른 포로수용소에의 門”³⁵⁾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쟁의 결과 수많은 신체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직접 국가전쟁의 부품으로 동원되었던 자들은 능동적으로 국가의 포로, 즉 토템인 국민이 되고 만 것이다.

『現代의 野』에서는 당시 현실에 대하여 새로운 진단을 덧붙인다. 그것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전쟁을 겪은 신체들에 대한 것이다. 주인공 현우는 어머니의 부고를 돌리기 위해 집을 나섰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게 잡혀 시체를 치우는 ‘민주사업’에 동원된다. 문학청년으로 나중을 위해 전쟁을 직접 보겠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는 수많

물리고 저리 물리고 하다가 마침내 생에 대한 애착에 부딪혔다. 한 개의 나사못으로 밖에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살아야 하겠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죽이기 시작했다. 싸움은 다시 일어났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았다.” 장용학, 앞의 글, pp.70-71.

35) 장용학, 위의 글, p.62.

은 주검들이 널브러진 잔혹한 실상을 확인하고는 허탈 상태에 빠진다.

‘북한 동무’는 강제로 동원한 시민들에게 시체를 수거해 와서 구덩이에 던져 모을 것을 명한다. 허탈 상태에 빠진 현우는 이 일을 하다가 시체구덩이에 굴러 떨어지지만, 북한 동무는 그를 구하기는커녕, 시간이 없다며 사람들에게 시체구덩이를 매우게 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타난 미군 비행기의 기총소사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매장 작업은 미완으로 끝나게 된다. 혼절해 문혀 있던 현우는 그날 밤 내린 비의 빗물 때문에 시체더미에서 정신을 차린 다음 간신히 구덩이에서 탈출한다.

그 후 그는 문학청년에서 오직 연명을 위한 삶을 선택한다. 게다가 서울 수복을 거치면서³⁶⁾ 이름을 만동(萬同)으로 고친 다음 남북한 어디에도 주체화되지 않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현우에서 만동으로의 변신은 당시 모든 신체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을 대변한다. 특히 당시 서울 사람들은 전쟁과 동시에 이승만 정부에게 버림받고 북한군의 폭력 앞에 놓여야 했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서울수복이 되자 인공치하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로 죄 인취급을 받았다.³⁷⁾

결국 남한과 북한 두 점령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번갈아 노출당한 모든 신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배하는 측의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만동은 부역자, 방위군, 부두노동자, 비행장 부역자, 포로 등의 삶을 전전했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루어진 ‘만동’들의 기회주의적인 삶의 모습은 오직 죽지 않기 위한 것이지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36) “저금통장을 보았다. 분명히 박만동이다. 九·二八 이후 사용한 이름이다.” 장용학, 『現代의 野』, 『사상계』, 사상사, 1960.3, p.346.

37) 류희식, 『국가전쟁과 법-폭력에 의한 인민의 포획』, 『현대소설연구』 58호, 현대소설학회, 2015, pp.204-210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되자 이제 근대국가의 터부인 법, 특히 국가보안법은 잔존하는 모든 신체들에게 무죄 증명을 요구한다.

「부두 노동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비행장에 가서는 군사 기밀을 탐지하지 않았고 포로수용소에 가서는 指命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오! 환도해서 반년 동안 이북에 갔다 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 보요!」
(중략)

「그건 살고 있다는 증거를 대란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당신이 현재 살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 보십시오.」³⁸⁾

위 인용문은 간첩혐의를 받은 만동에 대한 법정 심리 장면이다. ‘만동’은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법장치의 논리에 끊임없이 저항한다.³⁹⁾ 그러나 그의 논리적 저항이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또 법이 명시하는 죄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할 수도 없다. 결국 그는 유죄선고를 받고 수감된다. 인공치하의 삶의 궤적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비의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모든 행동들은 명백한 간첩행위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결말에서 만동은 블랙 코미디처럼 감방의 문에 손가락이 끼어 그 고통으로 죽는다. 이에 대해 작가는 “다 자란 現代人의 주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겪은 모든 일은 “現代에 生이 주어진 모든 人間이 겪거나 알거나 당하고 있는 수모요, 傷處요,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

38) 장용학, 위의 글, p.348.

39) 최후진술에서 만동은 판사들이 법장치인 한에서 법이 포획한 ‘세계’의 바깥에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들 역시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아울러 그는 판사들을 향해 “나는 무덤에서 나온 이래 世界(법에 포획된 세계를 말함-인용자)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有罪判決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世界」 안에서 당신에게 有罪判決을 내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장용학, 위의 글, p.351.

들에게는 “그것이 미미하거나 마음이 살찼거나 중독이 되어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진단한다.

만동은 전후의 모든 신체들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휴전이 끝난 이후 법은 언제나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법이 자신들을 호출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집행유예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법이 그들을 호출한다면 전후의 모든 신체들은 적의 치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를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전쟁을 겪은 신체들은 휴전이 되자 터부인 법에 포획되어 법의 폭력을 견디거나 폭력 자체를 자명한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민 즉 토템이 되어갔던 것이다.

이상의 두 작품을 통해서 장용학은 ‘인민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장치’⁴⁰⁾라는 근대국가의 표상을 깨트리면서, 국가장치의 기능이 법과 폭력을 통해 신체들을 인민(국민)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공포에 의해서, 그리고 휴전 이후에는 법에 의해서 국민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정확하게 진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詩集』의 동호는 별다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現代의 野』의 현우(만동)는 법의 폭력에 의해서 살해되고 만다. 결국 장용학은 이 두 작품을 통해서 국가장치의 기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국민국가의 표상을 깨트리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포획을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40) 이는 근대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논자들의 주장에서 공통된 것이다. 만인의 전쟁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의에 의해 공동체를 결성했다고 보든(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 pp.24-25), 인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에 의하여 국가공동체를 결성했다고 보든 간에(토마스 홉스, 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pp.233-234.) 근대국가 설립의 당위성은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두 작품과 달리, 유고 『氷河紀行』은 미완임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여 국가를 파괴하고자 하는 작품이다.⁴¹⁾ 조지오웰의 『1984』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에서 대총통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만들어진 천년성공화국은 지배층과 피 지배층으로 구성된 ‘정복국가’이다. 지배층은 “5·16쿠데타를 일으킨 주체 세력과 이에 호응하여 협력한 자”, 중간층은 “쿠데타에는 협력하지 않았지만 민주진영에 가담한 일이 없는 자로서 공이 있거나 유능한 분자와 그의 직계 가족으로 이루어진 층”⁴²⁾이며, 나머지는 마지막 피지배층이다. 이들은 진골, 범골, 우골층이라고 부른다.

천년성공화국의 피지배층은 거세를 당해 유화된 상태이다. 이들은 국가가 행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대로 수용한다. 그런데 이들을 거세시킨 가장 중요한 장치는 언어이다. 국가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개조하기 위하여 한자어를 폐지하고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을 시행하여 비행기를 ‘날탈’로 공차기를 ‘아내무섬장’으로 바꾸어 쓰도록 만드는가 하면, ‘반대로 쓰기’를 하여 “비판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해서 그것을 반대의 뜻으로”⁴³⁾쓰도록 한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국가는 한자어를 추방하고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한 ‘새나라말’을 개발하여 그것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존의 모든 언어체계를 파괴하여 사람들이 언어를 통한 비판적

41) 참고로, 이 작품은 『장용학문학전집』(국학자료원, 2002) 3권에 실린 또 다른 유고인 『천도시아비야』와 연작으로 구성된 것이다. 『천도시아비야』가 박정희 정권의 악랄한 국가폭력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빙하기행』은 이에 대한 저항을 실험하고 있다. 설암스님, 유리, 허무평, 정성애 등의 인물은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다만 두 작품 모두가 미완성이라 사건의 연속성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42) 장용학, 『빙하기행』, 『한국문학』, 2001, 가을, pp.116-117.

43) “이러하면 독재정치를 민주정치, 전체를 일부, 낭비·향락·방탕을 미덕, 영구집권을 조국의 근대화라 했고, 인권을 탄압하고 고문을 일삼는 것을 십자가를 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용학, 위의 글, p.115.

사유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한다.

그 다음, 대총통은 영구집권을 위한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 하나는 모든 가정과 직장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나라말로 된 헌법을 공포하는 것이다. 전 인민은 국가장치의 판옵티콘으로부터 전면적인 감시를 당하는 한편,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도록 새 나라말로 공포된 헌법을 통해 통제와 지배를 받게 된다.

대총통은 박정희의 이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일본 군국주의와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믹스된 혼혈아”로 규정된 그는 “8·15 해방 전에는 일군 소위(日軍 少尉)로 만군(滿軍)에 배속되어 한국의 독립운동을 억압했으며, “해방되어서는 빨갱이가 되어 군프락치로 책(責)을 맡으면서 구군의 적화공작을 했는데 체포되자 자기 목숨과 프락치의 명단”⁴⁴⁾을 맞바꾸기도 했다. 그의 정치는 ‘정권유지’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선(善)이었다. ‘시월유신’을 단행한 것도, 또 수도인 천년성을 제외한 도시 전 지역에 폭발장치를 설치하여 “육백만 시민을 인질로 잡아놓고 있”⁴⁵⁾는 것도 모두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엽색행각으로 구설에 오르자 에로티시즘을 국가에 만연하게 만든다. 심지어 국가의 경제조차 ‘관광입국’을 표면에 내건 ‘여색입국’으로 외국인이 내는 화대가 국가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가 된다. 그는 요일별로 잠자리를 하는 여성을 따로 두는데, 평균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모든 ‘요일부인’들은 ‘정조대’를 차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정조대 열쇠가 바로 전 국민을 인질로 삼고 있는 폭과장치를 조작하는 ‘악마의 열쇠’이기도 하다.

44) 장용학, 위의 글, p.131.

45) 장용학, 위의 글, p.130.

이와 같은 천년성공화국에 대항하여 민주회복을 위한 ‘인간전선’이라는 결사조직이 결성된다. 인간전선은 설암스님을 필두로, 그가 “지난 이 년 동안 사회의 구석구석을 훑다시피 정력적으로 찾아내어 포섭한 민주투사 삼백삼십 명”과 그들 각각이 세 명씩 포섭한 세포들을 합해 약 천명에 이르는 조직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금요부인이 되어 그의 총애를 받고 있는 ‘유리’, 내시가 되어 천년성에 잠입하기로 한 주인공 허무평 역시 그 일원이다. 인간전선은 유리를 통해 ‘악마의 열쇠’를 탈취하여 인질이 된 시민들을 구한 다음 천년성의 경비연대인 17연대와 저항선을 구축한 후, 피지배 계층인 일반시민들에게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언어에 의한 사고의 통제를 해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자각한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군이 되어 대통령에게 직접 저항하도록 한 다음,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 이들이 이러한 계획을 짜게 된 데에는 천년성의 국군이 약병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때문이다. 천년성 국군은 훈련보다는 대통령을 위한 열병식이나 분열식에 익숙한 군대로, 명령에 복종은 잘 했으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없었기 때문이다.

작전대로 천년성에 내시로 잠입한 무평은 열대여섯 살 되는 수요부인과 대통령의 일상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노예임을 간파한다.

대통령은 한 마리의 가축, 노예였습니다. 그에게서 노예에게서만 나는 가축의 냄새가 있습니다. 아까 그가 앞을 지나갈 때 그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향수내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고약하게 비린 냄새였습니다. 천년성의 국민들이 공포의 노예라면 대통령은 권력의 노예, 최고라의 노예였습니다.⁴⁶⁾

46) 장용학, 위의 글, p.153.

무평의 말에 따르면 최고의 권력자인 대총통은 쾌락과 권력의 노예이며, 국민들은 공포의 노예이다. 결국 천년성은 노예들의 나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장용학이 진단한 당대 남한 사회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근대국민국가의 토템과 터부의 궁극적인 기능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독재정치를 연장하기 위하여 온갖 권모와 술수를 부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표면에 내세운 것은 ‘조국의 근대화’라는 기치였다. 이 기치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실천적인 모습과 ‘유신’이라는 폭력적 체제로 현실화되었다. 국가장치는 신체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국민’이 되기를 강요했다. 그 결과 ‘근대화’라는 기치가 내세운 장밋빛 미래와 달리, 모든 신체들은 국가장치의 노예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진단은 작품의 제목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모든 자유가 얼어붙은 시기가 바로 ‘빙하기’이기 때문이다.

미완성인 이 작품에서 혁명의 성공여부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총통의 장기집권이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는 암시는 강하게 드러난다. 이미 장기집권이 완성된 천년성공화국에서 4년마다 시행되는 총선거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또 대총통에게는 형식적이거나 국민들에게 자신의 통치를 허락받는 ‘축제일’이다. 자신의 관저의 발코니 아래에 운집한 수십만의 동원된 인파를 대상으로 대총통이 구국어로 연설을 하면, 그것이 새국어로 번역되어 스피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마치 잘 짜진 한편의 연극처럼 대총통의 연설과 운집한 청중들이 화답하는 박수가 오고 간다. 총통의 연설은 모두 자신이 행하는 독재와 폭력적 정치가 얼마나 훌륭하고 타당한 것인가를 자랑하고 자찬하는 것 일색이지만, 새국어로 번역되어 방송되기 때문에 청중들은 그 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다만, 그들은 대총통이 휘두르는 주먹과 그 주먹의 진폭에 맞추어 익숙하게 정해진 길이만큼의 박수를 칠뿐이다.

그러던 중 사고가 일어난다. 새국어로 번역되어 방송되어야 하는 연설 내용이 방송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구국어로 청중에게 방송되고 만 것이다. 그러자 우골층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때 마침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대총통이 광란에 가까운 연설을 하는 도중에 벼락이 떨어진다. 그런데 벼락은 “국조와 국부의 동상”을 내리쳐서 국조가 탄 말의 모가지와 국부의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자 대총통은 그러한 사건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자리를 떠난다.

결국 미완으로 끝난 만큼 작품의 결말은 열려있다. 하지만 작품 전체에 걸쳐서 대총통 박정희의 악행과 학정, 당대 국가장치의 폭압적 정치행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장용학이 당대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혁명조직의 활동을 소설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혁명의 잠재성을 문학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⁴⁷⁾

V. 결론을 대신하며

이상으로 장용학 소설이 금기에 어떻게 대응해 갔는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터부(taboo)의 번역어인 ‘금기’는 주로 ‘위반’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용어를 ‘토템’과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그 까닭은 ‘금기-위반’의 개념적 쌍을 통한 고찰은 현재까지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다양한 금기와

47) 장용학의 부인 최화자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가 이 작품의 초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을 때, 출판사에서 전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면서 내용의 과격함 때문에 실어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작가는 실리지도 못하는 작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한동안 절필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실정치에 대한 그의 문학적 저항이 너무도 격렬하여 당대 문단이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위반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반면, ‘토템-터부’의 개념쌍을 고찰하면 금기의 메커니즘과 기능을 현재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와 니체 그리고 들뢰즈(가타리)의 논의를 참조하면 토템과 터부는 인간 사회체가 존재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시사회체에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토템과 터부가 수평적으로 공존했으나, 국가가 출현하면서 전제군주리는 초월적인 일자에 의하여 다양성은 억압되고 말았다. 전제군주제의 토템과 터부는 전제군주 자신과 그의 법(표정)이다. 이와 달리, 근대국민국가의 토템과 터부는 국민(민족)과 현실의 법이다. 이들 국가의 토템과 터부는 국가를 구성하는 것임과 동시에 신체들을 특정한 형상으로 고정시키고 억압하는 기제가 된다.

장용학은 자신이 문학을 통해 사회적 금기에 대하여 도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금기들이야말로 현실이 요구하는 ‘인간’의 형상에 신체들을 가두어 왔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그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는 「人間의 終焉」에서 ‘동종포식 금지’, 「圓形의 傳説」에서는 ‘근친상간 금지’ 등의 금기를 능동적으로 부정한다. 그가 이러한 금기를 부정하는 것은 흔히 ‘금지당하고 있는 것’ 즉 결핍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금지가 지향하는 목적 자체의 무가치함을 드러내고, 그것의 부당함을 초극하려 한다.

4장에서는 근대국민국가의 토템과 터부인 국민(민족)과 법에 대한 것이다. 인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국가장치는 신체들을 주체화하여 ‘국민’으로 만들고 동시에 법으로 포획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요한 詩集」에서는 한국전쟁에 동원된 신체들이 죽음의 공포에 내몰림으로써 능동적으로 국민이 되어 국가의 포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現

代의 野』를 통해서도 비자발적으로 전쟁을 겪어야 했던 대부분의 신체들(민간인)이 휴전이 된 이후 남한에서 법-폭력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국민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유고인 『氷河紀行』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 통치를 천년성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장용학은 천년성공화국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가 노예가 된 곳으로 규정하고, ‘인간전선’이라는 혁명조직을 통해 국가장치를 파괴하고자 시도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장용학의 소설들은 신체 능력을 제약해 온 다양한 금기들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의 문학적 지향은 ‘근대’ 내지 ‘대안근대’를 지향했던 여러 작가들의 실천은 물론, 여러 연구자들의 시선을 훨씬 뛰어넘는다. 따라서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소설은 지배적이었던 (대안)근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미 근대의 바깥을 고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장용학, 『人間的 終焉』, 『문화세계』, 문화세계사, 1953.11.
장용학, 『圓形의 傳說』, 『사상계』, 사상사, 1962.4.
장용학, 『요한 詩集』,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57.7.
장용학, 『現代의 野』, 『사상계』, 사상사, 1960.3.
장용학, 『빙하기행』, 『한국문학』, 2001, 가을.
장용학, 『感傷의 發言』, 『문학예술』, 문학예술사, 1956.9.
장용학, 『현대문학의 양상 상(上) - 주어와 연금술』, 『동아일보』, 1959.5.8.
장용학, 『나는 작품을 어떻게 쓰나?』, 『사상계』, 사상사, 1962년 12월호.
장용학, 『작가의 말』, 『장용학 대표작품 선집』, 책세상, 1995.

2. 참고자료

- 김승웅, 『나는 뭘 쓸 수 있던 말인가 - 『傳說』 속에 묻혀 사는 작가 張龍鶴』, 『한국일보』, 1983.9.28., p.7.
21세기문학사, 『<요한시집>에서 <하여가행>까지』 - 원로작가 장용학과와의 만남, 『21세기 문학』, 1997년 가을호, p.18.
박지웅, 『프로이트의 모세살해설을 통해 본 식민지, 신식민지, 탈식민지의 기원』, 『현대사상』 제9호, 현대사상연구소 편, 2012, p.33.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2011, p.452.
류희식, 『장용학의 전기(前期) 소설에 나타난 ‘비인되기’와 ‘소수자되기’』, 『한국현대문학이론과비평』 제7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류희식, <장용학 소설의 삶문학적 특성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5, pp.137-139.
류희식, 『국가전쟁과 법-폭력에 의한 인민의 포획』, 『현대소설연구』 58호, 현대소설학회, 2015, pp.204-210.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pp.182-190.
프리드리히 니체,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13, pp.398-399.
G. 프로이트,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4, p.54.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김재인 역, 『안티 오이이푸스』, 민음사, 2014, p.450.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Mille Plateaux, Minuit, 1980(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민음사, 2001, p.684.

John Locke, 강정인, 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 pp.24-25.

Maurizio Lazzarato, 신병현, 심성보 역, 『기호와 기계』, 갈무리, 2017, pp.34-35.

Thomas Hobbes, 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pp.233-234.

Abstract

Overcoming the Taboos in Jang Yonghak's novels

Ryu, Hee-sik

This study aims to examine as for how Jang Yong-hak's novels confront taboos in Korean society and investigate the meaning with regards to "Korean Literature and Sociology of Taboos". Jang Yong-hak has once announced that his novels are the challenge to social taboos. Hence, I have traced the genealogy of taboos and its functions to clarify the reasons for his challenge to society. Taboos are more related to 'totems' which constitute various societies than 'transgression.'

According to Freud and Nietzsche, many societies are operated by two mechanisms of 'totems and taboos.' Historically, there had been diverse and heterogeneous totems and taboos in a primitive society. However, when despotic monarchy appears as a primitive state, all the totems and taboos are reestablished by 'despotic monarchy and his law (expression).' Bodies lose their own actions and are encoded for totems and taboos. And then totems and taboos are transformed into 'nation (people) and law,' as nation-state appears. Finally, the body itself becomes nation's totem and is voluntarily subjected to legal sanction. In other words, the modern state has incessantly changed bodies into 'nation.' I can state that taboos are the mechanism which restricts and constrains the ability of bodies for the operation and preservation of a society.

It is not desirable to make Jang challenge and overcome taboos in his novels. It is useless for him to pursue the objects that society demands and he has attempted to overcome them. He wanted all the bodies to recover their own activity out of subjection.

Key Word : Jang, Young-Hak, totem, taboo, overcoming the taboo, resistance to the subordination

류희식

소속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자우편 : ivy-01@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